

■ 다녀와서, 보고와서 ■

박물관이 보여주는 지중해 문명의 미래 : 마르세유의 <유럽 지중해 문명 박물관(MuCEM)> 을 다녀와서

김진영

라 마르세에즈(La Marseillaise)를 부르며 킬리리 궁으로 들어간 마르세유의 용군이 가졌을 열정, 프랑스를 대표하는 축구스타 지네딘 지단(Zinedine Zidane)의 개인기 ‘마르세유 롤렛’과 같은 화려함 그리고 어지러움, 알렉상드르 뒤마가 몽테크리스토 백작에서 묘사한 마르세유의 이프 섬(Château d’If)에서 느껴지는 음산함. 이 복합적인 감정은 처음 마르세유에 발을 디뎠을 때 내가 받았던 느낌이었다. 지난 여름, 박단 선생님과 함께 한 달간 프랑스에 머물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개장한 마르세유의 뮈쎈 박물관에 한 번 다녀와 보라고 추천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프랑스 남부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마르세유에 들러 뮈쎈에 다녀오게 되었다. 파리에서 떼제베를 타고 세 시간 반 만에 도착한 마르세유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답게 활기차 보였으며, 구 항구(Vieux Port)를 가득 채운 보트와 요트, 광장에 펼쳐진 노점은 화려하다 못해 어지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사이사이로 보이는 어두운 골목길과 스산한 거리를 보았을 때는 이 도시가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내가 마르세유에서 받았던 첫 인상은 아마 마르세유가 겪어온 역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중해에서 프랑스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며 ‘제국의 항구’라는 별명을 가진 마르세유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프랑스적이지 않은 도시이다. 기원전 600년 경 그리스의 식민지로 시작된 마르세유는 로마 제국 시기 갈리아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하였으며, 중세를 거쳐 근대에는 프랑

스의 지중해 무역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항구도시의 특성 상 수많은 외부인들이 마르세유를 드나들었는데, 20세기 초에는 이탈리아인이 인구의 40%를 차지하기도 했으며, 그 후에는 프랑스의 북아프리카 식민지 지배로 마그레브 지역의 사람들 역시 이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이렇듯 마르세유는 도시가 시작될 때부터 지중해의 여러 지역 사람들이 공존하고 융합되는 지역이었던 것이다.



유럽 지중해 문명 박물관(이하 뮤쎸, Mu-CEM, Musée des civilisations de l'Europe et de la Méditerranée)은 유럽과 지중해의 연결고리인 마르세유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박물관이다. 유럽고 지중해 문명의 역사를 메인 테마로 한 뮤쎸은 설립 계획이 세워진 2000년 이후 정식으로 개장하기 전까지 알제리 관련 전시회와 같은 몇 가지의 예비 전시회가 열려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다. 뮤쎸은 이러한 준비기간을 거쳐 드디어 올해인 2013년 6월 4일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이 참여하여 개관식을 가지며 본격적인 유럽 지중해 문명의 역사를 다루는 최초의 박물관이자 지방에 위치한 프랑스 최초의 국립박물관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올해의 '유럽 문화 수도'로 지정된 마르세유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문화 도시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데, 뮤쎸의 개장은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었다고 한다. 박물관의 위치 역시 어느 정도 이러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데, 뮤쎸은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마르세유 항구의 입구를 지켜왔던 생장 요새(Fort Saint-Jean)와 과거 여객터미널이었던 J4에 건설되어 지중해와 마르세유를 잇는 역사적 장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 시가지에서 바라본 뮤쎸의 생장 요새

박물관은 마르세유를 여행 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마르세유를 방문하는 여행자가 가장 먼저 둘러보는 구 시가지 지역(Le Panier District)과 구 항구를 따라 걷다보면 가장 끝에 있는 생장 요새에 도착하게 된다. 다른 박물관처럼 일부러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었다. 내가 뮤쎸을 방문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구 시가지 여행을 하면서 생장 요새의 박물관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뮤썸에 도착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관과 풍경이었다. 우뚝 솟은 요새와 그 뒤로 보이는 지중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뮤썸은 박물관의 전시품뿐만 아니라 풍경과 경치로 하나의 멋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구 시가지에서 요새로 들어가는 높고 좁은 구름다리에 서면 마치 전망대에 올라온 것처럼 마르세유의 구 항구를 한 눈에 담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박물관은 그물 모양의 콘크리트가 유리 건물을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4층 높이의 박물관 건물은 전체가 유리벽으로 되어 있었고, 관람객들이 건물의 외벽을 두르는 통로를 통해 박물관의 내부와 바깥의 바다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실제로 이 건물은 루브르 이슬람 전시관을 디자인한 유명한 건축가 루디 리시오티(Rudy Ricciotti)가 설계했는데, 그는 박물관 건물을 구상할 때 항구와 바다를 가진 마르세유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 ‘돌, 물, 바람’을 모티브로 하여 건물의 설계 도면을 그렸다고 한다.

내가 뮤썸에 도착했을 때는 많은 시민들이 생장 요새와 박물관의 테라스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박물관 티켓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요새와 박물관의 외부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공원과 같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장 요새를 둘러볼 수 있는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박물관 테라스는 건물과 어울리는 디자인 의자가 놓여 있어 독서를 하는 사람들, 피크닉을 나온 가족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뮤썸 테라스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

박물관은 크게 두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생장 요새 안에 있는 작은 건물들로 이루어진 몇 개의 소규모 전시실이었고, 여기서 다시 구름다리를 타고 지나가면 뮤썸의 메인 건물인 J4로 들어갈 수 있

었다. 박물관의 상설 전시실은 이 J4에 있는데, 여기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지중해 문명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상설 전시실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지중해 문명에 대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다. 박물관의 구성은 시대 순서로 되어 있었다. 뮌헨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1층의 전시관에는 농경과 관계시설의 도입, 종교의 등장으로 시작된 초기 지중해 문명을 소개하고 있었다. 다음 전시실에서는 지중해 지역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세 가지 유일신 종교인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었다. 이들의 유일신 사상은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아케나톤이 기존의 다신을 숭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태양신 아톤만을 숭배했던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이 시기 이집트에서 출현한 유일신 사상이 전파되어 세 종교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특히 예루살렘이 각기 다른 종교의 성지로 취급되어 한 도시 내에서 상이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예루살렘 전시관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단순히 유물과 모형, 그리고 설명으로 전시실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시청각 자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관람객들이 입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람실을 배치한 것이었다. 물론 여타 박물관에도 영상물을 상영하고 있지만, 뮌헨은 관람객들이

유물을 보는 동선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청각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전시품들이 배치된 가운데 큐레이터의 영상이 나오면서 각 유물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의 종교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실제 도시의 전경과 유적지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더 생생하게 박물관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소하지만 방문객들의 집중도와 흥미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뮌헨 상설전시실 내부

이어지는 전시실에서는 지중해의 시민권과 인권에 대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다.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된 민주주의는 노예와 여성을 배제했다는 한계

에도 불구하고 직접 투표와 시민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상은 로마와 베니스를 거쳐 근대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베니스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활발한 해상 활동을 진행했으며, 대항해시대로 해상의 주도권이 대서양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지중해 무역의 선두 역할을 수행해왔다. 근대 시대를 소개하는 전시실에서는 프랑스 혁명부터 이어져온 혁명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었으며, 제국주의의 팽창을 설명하면서 프랑스의 북아프리카 침략을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내용이 이어졌다. 특히 알제리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었는데, 1830년 프랑스의 알제리 침공부터 양차대전을 거쳐 1962년 독립, 그리고 그 후의 프랑스와 알제리의 관계에 대한 전시품과 설명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시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뮤지엄의 주제인 지중해 문명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박물관이 의도하고자 했던 모습은 지금까지 전시관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주 오래 전부터 서로 교류하고 상호 작용을 하면서 흘러온 지중해 문명이 현재는 그 교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라 느껴졌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자스민 혁명과,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갈등,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문제, 시리아 내전과 같은 요소들은 지중해 문명이 함께 공존하고 나아가는 길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요르단의 상황을 비판하는 짧은 영화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영화에서는 아주 현대화되고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고층 빌딩의 내부 생활을 보여준다. 그러나 영화의 막바지에는 그 빌딩이 슬럼가로 둘러싸여 있고 슬럼가와 빌딩 사이에는 높은 벽이 쳐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요르단의 지도층과 일반 서민 간의 괴리를 나타내고자 했다. 또한, 지중해와 접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혁명과 시위, 탄압을 찍은 비디오를 한 곳에 배치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중해 지역의 혼란을 또렷하게 각인시키고 있었다.

상설 전시관에 이어 뮤지엄 내부의 일부 전시관과 생장 요새에서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 주제들도 매우 흥미로웠다. 한 쪽에서는 한창 프랑스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히잡과 관련한 전시가 있었고, 또 한 편에서는 섹시즘과 관련된 주제로, 그리고 생장 요새의 전시관에서는 프랑스로 이주해온 노동자 가족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다. 히잡을 전시

하고 있는 공간에서는 무슬림 여성의 플라르가 현재에는 종교적, 전통적, 또는 개인의 패션이나 성적인 정숙과 같이 다양한 의도로 착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여성의 해방이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히잡에 대한 많은 사진과 전시품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이란에서 히잡이 포함되어 있는 여성 축구 국가대표의 유니폼과, 루이비통 무늬로 된 히잡, 부르카를 착용하고 온 몸을 가린 여성들이 최신식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히잡의 의미과 기능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뮤썸은 여타 박물관과는 다르게 지중해 문명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역사 전체를 재배치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박물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타 박물관들은 특정한 세부적 주제를 다루고 있거나, 역사 전체를 개괄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 대다수이지만, 이곳은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알고 있는 역사의 부분들을 지중해 문명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연결하여, 관람객들이 자연스레 지중해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엮어 생각할 수 있게 하였다. 전시관을 둘러 본 후에는 문명에 관한 하나의 책을 읽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이러한 구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중해 문명을 인식하도록 만들면서, 기존의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코스모폴리타니즘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이름을 빌린 새로운 서구의 식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뮤썸에서 이슬람 문화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은 지중해 문명을 공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서구의 역사를 중심으로 지중해 문명의 발전 양상을 표현하는 부분이나, 현재 지중해 문명의 공존을 저해하는 요소를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정치 경제적 혼란에 집중하여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서구 문명을 발전되고 따라야 할 것으로 여기고, 뒤쳐진 지역은 서구 문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고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뮤썸의 개장만으로 지중해 문화권의 공존과 상호작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뮤썸은 지중해 문명이라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 속에서 단순히 문화재와 유물을 수집하고 발견된 것들을 서구

박물관이 보여주는 지중해 문명의 미래

의, 프랑스의 입장에서 전시되고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소장된 전시품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마르세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유럽과 지중해의 문화 수도가 될 것이며, 뮤썸은 그것을 실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다.

첨단의 시설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구성된 뮤썸을 나와 파리로 돌아가기 위해 마르세유 생샤를 역(Gare Saint-Charles)으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 어두운 골목길을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뮤썸과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어둡고 좁은 길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아랍계 아저씨들이 허름한 노점에 모여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관광객과 시민으로 붐비던 뮤썸에서 10분 떨어진 거리에는 황량하고 스산한 이주민의 마을이 존재했다. 화려한 뮤썸이 지중해 문명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의 희망찬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곳은 그 어두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발걸음을 돌렸다.



뮤썸에서 찍은 사진

서강대 서양사학과 석사과정, adelaide16@naver.com